

# 출 장 결 과 보 고 서

2008년 6월 18일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5차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5차회의 참석
3. 출장지역: 중국 북경
4. 출장기간: 2008년 6월 11일~14일(4일간)
5. 출 장 자

|          |        |     |
|----------|--------|-----|
| 부서명(기관명) | 직 급    | 성 명 |
| 국제농업연구센터 | 선임연구위원 | 어명근 |

## 6. 출장일정(5차회의 일정)

| 일 시     |             | 일 정                 | 주요활동  |
|---------|-------------|---------------------|-------|
| 6.11(수) | 14:00-15:45 | 전체회의                | 회의 참석 |
|         | 14:00-17:30 | 무역구제 및 농업분야 회의      | 회의 참석 |
| 6.12(목) | 09:30-12:00 | 전체회의 및 농업분야 회의      | 회의 참석 |
|         | 14:00-17:30 | 농업분야 회의             | 회의 참석 |
| 6.13(금) | 09:30-11:00 | 잔여 의제 협의            | 회의 참석 |
|         | 11:15-12:00 | 회의 결과 정리 및 차기 회의 일정 | 회의 참석 |

## II. 주요 출장 결과

### 1. 전체회의 개요

#### □ 참석자

- 한국측: 외교통상부 박효성 국장(수석대표), 정책기획과 이미연 과장, 농림부 박수진 과장,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 등 22인
- 중국측: 상무부 張克寧(Zhang Kening) 국제사부사장(수석대표), 陳寧(Chen Ning) 과장, 상해 WTO센터 姚為群(Yao WeiQun) 부원장 등 15인

## □ 주요 논의 내용

중국측 수석대표(Zhang Kening)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동연구(Joint Study)의 목적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지난 4차례 회의를 통해 대부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 또한 잔여 의제에 대한 합의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우리측 수석대표(박효성국장)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소그룹 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자고 제언.

## 2. 농업분야 논의 개요

### □ 참석자

- 한국측: 외교통상부 이미연 과장, 농림부 박수진 과장,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 등 12인
- 중국측: 상무부 陳寧(Chen Ning) 과장, 농업부 상해 WTO센터 姚為群(Yao WeiQun) 부원장 등 10인

□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농림수산분야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한·중 양측이 합의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한국측이 수정, 송부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중국측은 먼저 회의진행 방식과 양측의 주장을 병기(parallel statement)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한국의 “민감부문(sensitive sector)”이지만 중국으로서는 민감부문에 대해 공동연구 단계가 아닌 협상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측은 이번 공동 연구에 정부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보고서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과 우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농업은 민감한 부문이라고 강조. 먼저 우리측이 송부한 보고서 수정안을 토대로 중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 중국측은 회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양측이 네차례의 전체 회의와 3차에 걸친 농업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중요성과 의미가 없는 자구(字句)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이번 회의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음. 또한 농업부 관계자들은 아직 우리측 수정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아 중국측 의견 제시를 위해 다음 날로 회의 연기를 요구하여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에 대한 준비도 부실한 상태로 판단됨.

- 산림분야의 FTA 영향과 관련하여 보고서 문안의 "export"를 "export volume"으로 수정하거나 보고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자고 요구.
- 중국의 농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견해 차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고 지적. 중국측은 FTA 체결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한국의 국가 전체적인 생산액과 복지가 증가한다는 문장을 명시하자고 주장.
- 중국은 한·중간 농산물 무역의 현저한 불균형조차 인정하지 않고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채소와 과일의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가공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문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FTA 체결시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농업생산과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됨. 상호 심각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 3. 평가와 결론

- 지난 2006년 한국의 KIEP와 중국 국무원 DRC(발전연구중심)간 민간 공동연구 보고서에는 한·중 FTA 체결시 농업 생산이 14.2~14.7%(또는 2020년 27.5억 달러) 감소하고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만일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내용이 민간공동연구 보고서보다 FTA 파급 효과를 적게 제시하거나 중국측 주장대로 언급을 회피하고 소비자 복지 증가만 기술할 경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FTA의 피해 규모를 축소 또는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비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FTA

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각주에라도 민간 공동연구보고서의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중국측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민감품목 양허 제외 또는 특별 취급'이라는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중 정상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 개시 선언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 협정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민감 농산물 예외 인정이라는 안전장치나 특별 조치없이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면 농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과 정치권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측과의 실무 접촉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끝 -